



8월 14일



아합 왕이 거짓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어요. “당신의 잘못으로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어요. 비가 오지 않자 얼마 후에 시냇물도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한 여자가 너를 돌봐 줄 것이다.” 엘리야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에게는 곡식 가루와 기름이 조금 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여자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 곡식 가루와 기름이 계속 있을 것어요.” 여자는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엘리야는 떡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여자의 집에는 곡식 가루와 기름이 아무리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삼 년이 흘렀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갈멜 산에 모였어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태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로 하셨어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요단 강가에 서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동생이 비행기 접어 달라고 떼를 썼어요.
남우는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싶었어요. 귀찮은 마음에
“갔다 와서 해 줄게!” 라고 말했는데, 놀다보니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동생은 울다 색종이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늦게 들어온 남우는 자는 동생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기로 생각했어요.



즐거운 활동



빈 칸에 필요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활활 남남 까악까악 조물조물



까마귀가

울어요.



엘리야가 빵을

먹어요.



엄마가

반죽을 만들어요.



제단에 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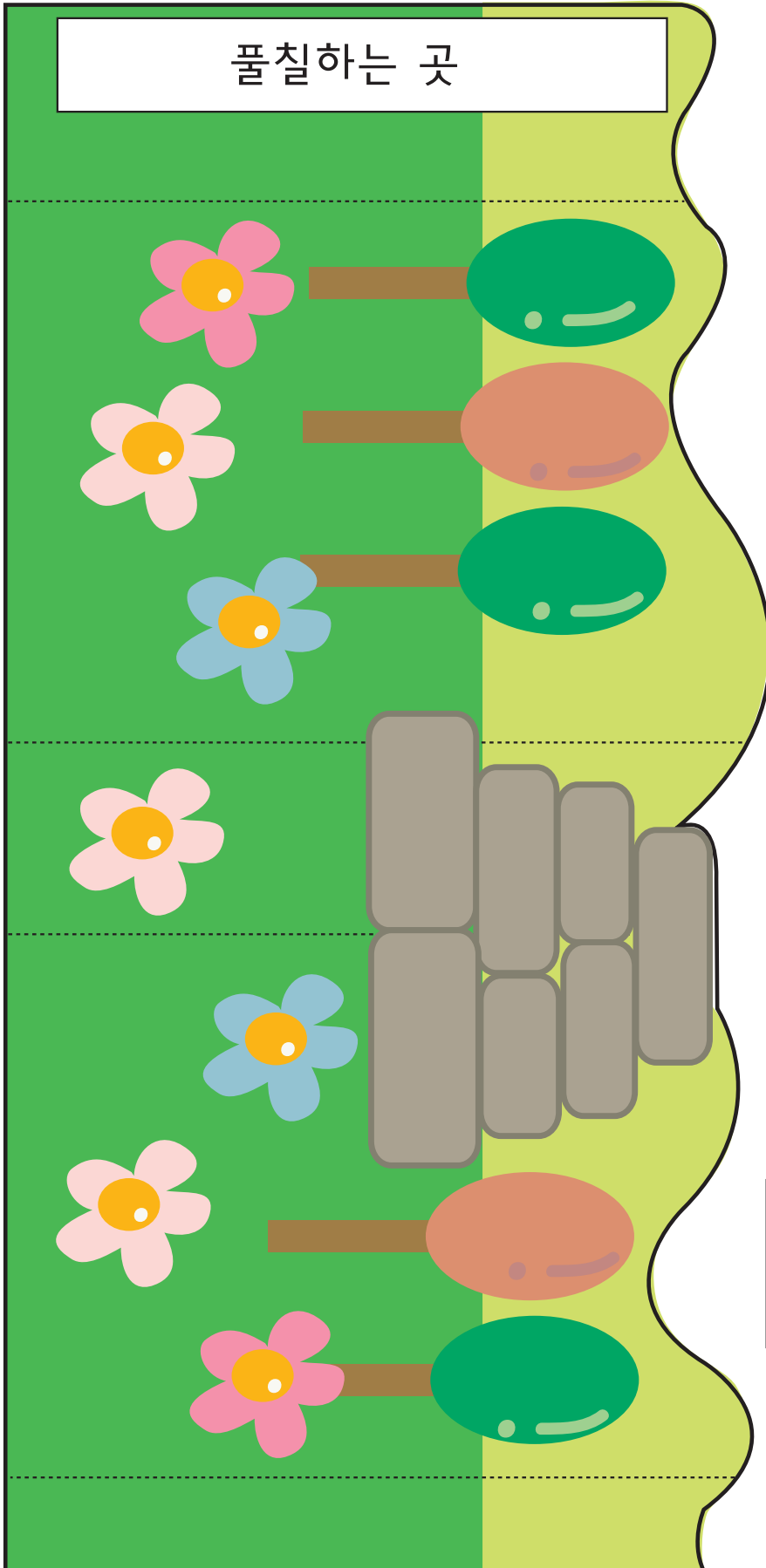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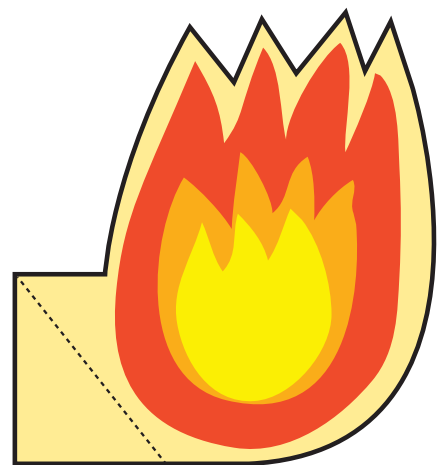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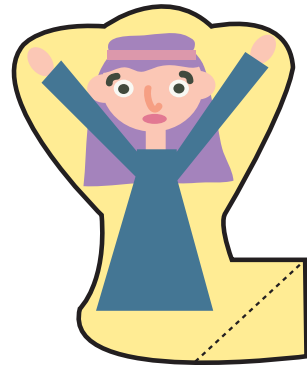
타올라요.

엘리야와 제단불 만들기

재밌는 만들기

풀칠하는 곳

*만드는 방법은
14쪽에 있습니다.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니
열왕기상 18장 24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